

20. 세상의 장래에 대한 꿈

2012. 5. 13.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합니다. 이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상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단2:1~4]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 지 이 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야하겠지요? 2장은 대부분 교인들이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다니엘의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답: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재위 2년에 꿈을 꾀니다. 그때는 기원전 603년경이지요. 그때는 왕위가 견고해졌다고 생각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의하여 주위의 강국들이 정복되었는데, 이제 자기의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장래를 꿈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꾸었다는 인상 외에 꿈 내용이 전혀 기억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꿈 내용과 그 해석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강박관념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고문단을 불렀는데, 그들은 바벨론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박수들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모두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과 밀착되어 있었지요. 20세기에든 그랬고 아마 21세기에든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그들은 왕에게 꿈 내용을 말해 달라고 했지요. 왕은 꿈을 꾸었다는 인상 외에 아무 기억도 없는 꿈 내용을 알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꿈을 꾀 본인이 잊어버린 꿈 내용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것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왕은 그들이 평소애 아무리 비밀한 것이라고 알아낼 수 있다고 장담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믿고 불렀고, 지금까지 대소사에 있어서 그들의 말과 설명과 해석을 믿었었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다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계속적인 설명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낫겠지요. 목사님이 단2:1~13절을 읽으시지요.

[단2:1~13]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 지 이 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

루지 못한지라 2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5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것이요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8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9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10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11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지요.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 박사가 되었으니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들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모든 박사가 다 왕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제군주의 명령이 그렇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한 해 주기를 구합니다. 왕이 허락한 여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벨론 박사들과 함께 다 죽음을 면하도록 하자고 말하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같은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말은 20~23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데도다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1장에서든 그랬지만 2장에서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실한 모습을 잘 보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시위대장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갑니다. 그는 왕에게 의미 있는 말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25절인데,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

가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유대 자손 중의 한 사람이라는 말은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상과 꿈을 이루시는 분은 유대 자손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유대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리옥의 이 표현은 자기도 모르게 구주에 대한 표상적 말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세상의 역사적 사건을 주관하시고 종국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 인물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 꿈이 바로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용이거든요.

2. 목사님이 1장을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장에는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군요?

답: 목사님, 감사합니다. 1장의 주제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상기시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네 청년들을 통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똑 같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궁극적 목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장래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진행되는 세상의 역사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유대 자손 중 한 사람인 예수님, 이 죄의 세상에 포로처럼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바로 구원의 복음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아, 목사님이 1장의 주제를 말씀하지 않았군요. 아마, 제가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 그 말을 읽은 것이 여기서 들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씀할 차례가 되었군요.

답: 예, 성경 내용을 이야기로 진행하지요. 다니엘은 왕의 질문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바벨론 식 이름을 말했네요. 아마도 왕의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왕이 말했지요.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참 교묘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우쭐하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자극을 주는 표현이잖아요. 많은 경우 이런 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동요하지 않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왕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비밀을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지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요소요소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화법이 그리스도인들의 화법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지요.

4. 다니엘이 해석하는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지요? 우리도 이 해석

을 읽으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 시원한 해석을 말씀하시지요.

답: 예, 다니엘은 이제 왕이 꾸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단2:28~35절까지가 꿈의 내용입니다. 왕은 사람모양의 상을 보았는데, 광채가 나고 심히 두려운 모양이었다고 했지요. 성경에 우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한 것 같습니다. 켈렘이라는 말인데, 형상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창세기 1:26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 형상이라는 말과 똑 같은 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우상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와 정강이,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의 발을 치니까 우상은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었지요. 정말 대단히 놀랍고 두려운 꿈이었지요. 왕이 다니엘이 설명하는 꿈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꿈에 본 장면이 새로 꿈꾸듯이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탁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겠지요. 그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옳다. 바로 그런 꿈이었어, 그래 그 해석은 무엇인가?” 왕은 바벨론 박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면 그 해석도 진짜인줄 알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말한 꿈 내용이 분명하니까 해석도 확실할 것을 믿고 다니엘의 해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5. 왕이 그런 꿈을 꾸 배경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가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겠지요?

답: 다니엘이 꿈 내용을 말할 때에 그 말을 먼저 했지요. “단2:29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꿈은 세상의 장래를 일목요연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36절부터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다음 은으로 된 부분은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한 금 머리도 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나라를 뜻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바벨론이 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시점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말이니깐요. 그러나 젊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담담하게 진술합니다. 은 같은 나라 다음에는 놋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철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금은놋철 같은 제국이 일어나지 못하고 분열된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나라들은 철 같이 강한 나라도 있고, 진흙 같이 약한 나라도 있으며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마지막 산에서 날아온 돌에 대하여 말합니다. 통일 제국이 아니라 분열된 여러 나라가 계속될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발과 발가락을 쳐서 우상 전체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한 것은 이 발가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지나

가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강조하고 말을 마쳤지요.

6. 목사님,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여 예언대로 진행되었겠군요?

답: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 아닙니까.(사46:10)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세계적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벨사살을 마지막 왕으로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정복되지요. 헬라는 기원전 168년에 그 종주권을 로마에 넘깁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지요. 이 로마는 기원 476년에 게르만 민족 대이동으로 종국을 고하고 로마의 통치 영역이었던 유럽에 게르만 민족들에 의한 여러 나라들이 건국되었습니다. 그것이 대강 10 나라쯤 되는데 그것은 우상의 발가락 수와 일치하지요. 그 나라들은 프랑크, 알레마니, 앵글로 색슨, 불군디아, 롬바르드, 서 고트, 스에바이, 동 고트, 반달, 헤룰리 등입니다. 이 중에 동고트, 반달, 헤룰리는 완전히 망하였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 지금 유럽 여러 국가들이지요. 프랑크는 프랑스이고 알레마니는 독일이고, 앵글로 색슨은 영국, 롬바르드는 이태리, 불군디아는 스위스, 서 고트는 스페인, 스에바이는 폴투갈 등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통일 제국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정확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기본은 로마제국 흥만사에서 다니엘서 2장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2500년간의 세계사를 예언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2600년이라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지구 국가들의 종말까지를 정확하게 예언한 계시입니다. 우선 로마제국 후에 그런 사대 제국 같은 통일 제국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잘 증명되지 않습니다.

7.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만, 계속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통일된 나라가 건설될는지 모르지 않을까. 지금 유럽은 유럽연합체를 결성해서 통일 유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 역사적으로 유럽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지요. 첫째로 9세기에 샤를마뉴(영어 발음: 찰스) 대제가, 다음은 16세기에 스페인의 카알 5세가, 18세기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 그리고 20세기에 카이제르, 무솔리니, 히틀러 등이 통일 국가를 이루려고 노력했으나 예언대로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연합이 사실상의 정치적 통일을 시도하지만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시고 계시를 주신 것이니까요. 프랑크의 샤를마뉴 대제 때는 거의 통일 제국이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삼분하여 차지하면서 통일의 꿈은 깨어졌지요. 것처럼 통일 국가가 되는 것 같은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통일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 세상 유럽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8. 그러면 그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런 때를 성경을 연구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답: 재림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고 사람에게 알도록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 24:36에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알려고 애쓰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9. 결국은 이 세상에 즉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에 건설할 것이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인데, 이런 복잡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답: 예수님께서 예언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셨지요. 요 13:19을 한 번 읽어보시지요.

[요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감사합니다. 예언의 목적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구주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 영생은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현실이 됩니다. 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요4:4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건의 예언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말씀하셨지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겠네요.

10. 그렇군요. 애청자들께서 다음 시간에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는 경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을 주셔서 예수님을 확신하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언과 그 성취를 확인하고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